

|오늘의 말씀|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
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사야 4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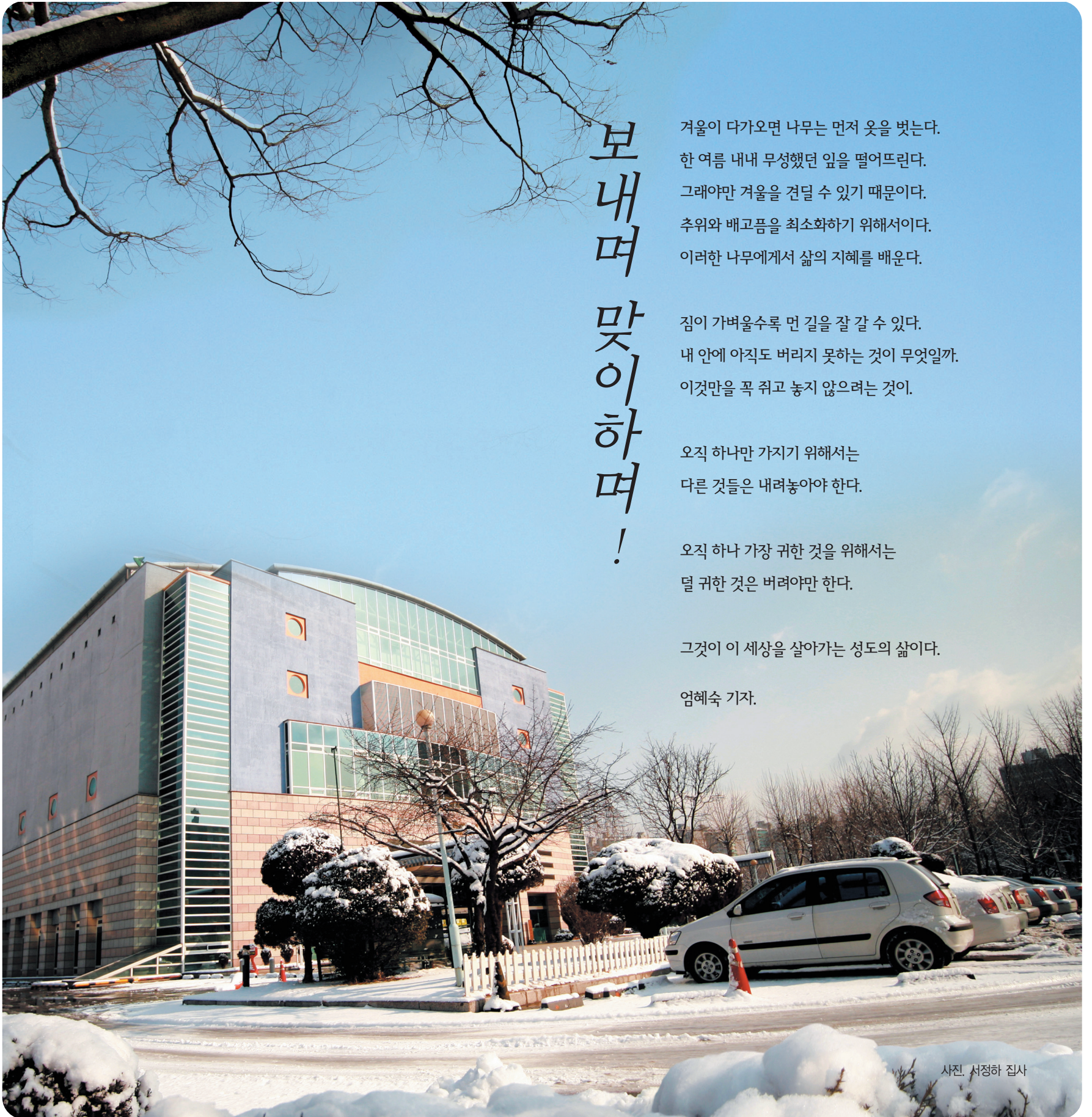
통 권 _ 제 242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2월 28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보내며 맞이하며 !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먼저 옷을 벗는다.
한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을 떨어뜨린다.
그래야만 겨울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추위와 배고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짐이 가벼울수록 먼 길을 잘 갈 수 있다.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오직 하나만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

오직 하나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는
덜 귀한 것은 버려야만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엄혜숙 기자.

사진: 서정하 집사

Purpose
Driven

40Days

목적이 이끄는 40일

소그룹 장소제공자 500분을 찾습니다!

(2009년 1월 첫 주일부터 교회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와 VTR(DVR)이 있을 분, 취향 짙은 분, 이웃에게 대접할 수 있는 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싶은 분.

목적이 이끄는 40일	3면
특집	4,5면
2009, 교육부...	6면

알립니다

함즐함울은 1월부터 휴간에 들어간 후 2월 22일 부터 발행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

누가복음 2:8~10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

복된 성탄절을 맞아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흔히 묻는 질문 가운데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입니다.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한참 뒤에야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먼저 목자들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8일 쯤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찾습니다. 이 때 성전 안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납니다. 거기서 성전세를 바치고 마리아는 정결 의식을 갖습니다. 이제 이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

성경에서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부유한 계층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민족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훗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훗날 출애굽 할 지형을 미리 걸었습니다. 목자처럼 백성들 앞서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애굽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대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때로 양들이 저항하기도 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품습니다. 모세 또한 이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 또한 목자로 살았고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일반 왕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왕은 목자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백성을 돌보되 목자와 같이 돌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삶의 위험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갈 길을 모를 때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 속에 깊이 베여있고 힘 있게 흐르는 능력이었습니다. 목자는 이 백성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신들을 먹여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목자는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낭만적이거나 우아한 직업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적 관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식일이나 예배와 같은 규칙적인 종교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종교세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인들에 의해서도 가장 비난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나 돌아와서도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동안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혔습니다. 참 목자가 없었기에 이리들에게 수 없이 찢겼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은 목자들은 바로 이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л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

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버려진 생명들을 찾아오셔서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비난 받는 생명들,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목자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비천하고 타락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셨느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성탄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생명이기에 들어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존귀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유

하나님은 무서워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는 커녕 도리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만듭니다.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속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장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거짓말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거짓말합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움을 갖도록 합니다. 죄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서 무서움을 키워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가 우리 안에 심어준 거짓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밤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축복하셨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라이트(N. T. Wright)라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선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봉사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어준 무서움이 많다는 뜻이고 무서움만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서움은 거짓입니다. 속임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했고 세상을 무서워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기쁨을 심으시는 하나님

성탄절의 메지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처음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이 땅에 기쁨을 심는 사역입니다. 기쁨을 심을 때 무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기쁨을 심을 때 거짓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기쁨을 심을 때 병과 슬픔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단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심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박원호 담임목사

목적이 이끄는 40일,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 대로 인생들이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40일간의 영적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인생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삶 속에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십일 이후의 삶도 확실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①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성경은 다음 다섯 가지의 인간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롬12:1).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다. 둘째, 교제입니다(엡1:5, 벧전1:3).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이것은 성도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셋째, 훈련입니다(엡4:13).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 되었고, 이 목적은 훈련을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 넷째, 사역입니다(엡2:10).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이 목적은 각자의 은사에 따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다섯째, 전도입니다(요17:18, 고후5:18,20). 인간은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곧 전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② 목적이 이끄는 40일, 어떻게 진행되는가?

- 개회 예배: 2009년 2월 27일(토) 오후 7시 대예배실
-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 2009년 3월 1일(주일) - 4월 12일(주일)

- ▶ 3/1(첫째 주)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 ▶ 3/8(둘째 주) 예배
- ▶ 3/15(셋째 주) 교제
- ▶ 3/22(넷째 주) 훈련
- ▶ 3/29(다섯째 주) 사역 * 특별행사: 사역박람회
- ▶ 4/5(여섯째 주) 전도 * 특별행사: 선교박람회

- 축제주일: 4/12 축제주일

③ 구역소그룹 모임의 역할

목적이 이끄는 40일에서 소그룹의 이 캠페인의 꽃과도 같습니다. 장소 제공자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 해 주면 됩니다. 커피 한잔만 준비하고 조금만 친절하면 됩니다. 준비된 담임목사님의 비디오, DVD를 보고 그 주에 해당하는 주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장소제공자는 반드시 인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인도자를 파견해 드립니다.

* 이번 캠페인은 주님의교회에 속한 전교인들이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장소제공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내년 1월 첫주부터 소그룹장소제공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④ 40일 동안 성도 개인이 해야 할 일들

- 매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 매 주일 제시되는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삶을 삽니다.
- 매 주마다 이루어지는 목적을 이끄는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섬깁니다.
- 매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합니다.
- 매주 주어지는 성경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한다(성경암송 열쇠고리 이용).

- 매 주마다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소그룹 장소제공자로 섬깁니다.

⑤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한 기대

이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회복과 변화와 부흥과 축복은 실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본 캠페인은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 전인격적인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습관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그룹에 참여 해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계선교를 위한 열정을 품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공예배와 가정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람직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복과 치유와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02년 가을 미국 새들백교회에 나타난 40일의 열매들입니다. 단 40일 만에 671명의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1200명이 새로 등록하고 예배 출석 인원이 평균 2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교회에 봉사한 적이 없었던 2200여명이 교회의 각종 사역에 헌신했고, 또 다른 3700명은 내년 연말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향한 무거운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25000명에 달하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이 6중 동안 약 2400여 개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국 새들백교회를 중심으로 1500여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예배 평균출석 22% 증가했고, 소그룹 모임 평균 출석 79% 증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전 13년 보다 지난 40일 동안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국 하일랜드 헬로우십 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흥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찬목사)



어려움을

올해는 세모가 유난히 춤다.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성장의 열매만을 맛보았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기 시작했다. 물질만을 추구했던 그들, 하루 아침에 소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경쾌하게 출근했던 가장은 어깨를 축 늘어 뜨리며 퇴근했고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문제이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난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본보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있는 장로님의 조언을 듣고 새해를 맞이하기로 한다.

아기예수와 순수 아담

썰렁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서 경제 불황의 늪이 꽤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문제보다 환경적 문제는 심각성이 더 크고 오래 되었다.



김현덕 장로

이러한 위기상황은 인간의 욕심이 그 원인이다. 인위적인 방법이나 과학으로 모든 문화가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착각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경제문제나 환경문제나 자연 앞에서 인간이 겸손하고 순수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순수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는 길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다.

인간의 순수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복음 전도와 이웃을 위한 봉사가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세계이자 성령님의 뜻인 자연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나 회복의 완성은 십자가의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그래서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는 순수한 어린이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된다.

2008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조

화롭게 회복되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순수한 아담이 모인 곳, 주님의교회이리라.

신용관계와 신뢰관계

전 지구적으로 신용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들린다. 실직, 감원, 감봉, 퇴사, 명예퇴직과 같은 용어들이 모두 인간 관계 뒀이 깨어지는 소리가 아닌가?



박호길 장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했던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진원지로 한 금융위기의 거센 파고가 세계 곳곳, 여러 나라에 부딪쳐 모든 나라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엄청난 파괴력에 놀랄 뿐이다.

글로벌 조직 속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추운 겨울 날씨에 기업하는 사람이건 안하는 사람이건, 가진 자든 안가진 자든 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앞에 두려워 하며 추위하고 있다.

미국을 본보기로 한 서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류가 고안한 정치 경제 체제 가운데 최고의 형태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 들이지 않았는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경제가 그들이 자랑해 온 선진신용사회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니 믿을 수 있는 사회 경제모델이라고 으쓱해 하던 그 오만함은 지금 어디 갔는가?

신용경제는 '크레디트'라는 벽돌을 안전장치로 삼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것으로 지탱하는 구조물과 같다. 철통같은 신용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통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만일 하나라도 빠지면 쉽게 우르르 무너지는 구조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한 신용경제 구조를 대신할 또 다른 경제모델이 있는가. 대체모델이 바로 신뢰경제구조다. 신용경제는 '크레디티'를 토대로 하고 '유행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반면, 신뢰경제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무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신뢰사회는 인간관계의 안전장치가 필요없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믿고 사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나와 너의 구분 없고 사사건건 따져야 하는 신용관계는 불편한 관계라고 기피한다. 그 이유는 신뢰사회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의 진정한 신뢰관계회복을 위하여 직접 이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나, 이웃과 이웃, 사람과 피조물간의 새로운 관계회복을 가져오게 하기위하여 이땅에 직접 오신 사건이다. 2008년 또 다시 찾아왔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 위기의 빨간 신호등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와 다른 감회를 느낀다. 어렵고 두려울 때일수록 우리성도들은 기본과 원칙의 중요함을 기억하자.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점검하자. 그리고 나와 나, 이웃과 이웃, 사람과 피조물간의 신뢰관계 회복에 힘써야 함을 잊지 말자.

선교사역을 하면서

매년 기다려지는 성탄절, 이날은 한해를 정리하는 기간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이 기간이 되면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올 한 해 동안 선교사역본부에서 봉사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였는지 생각하며 몇 자 적어봅니다.



조원호 장로

항상 봉사자가 봉사할 경우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사역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목회자님과 많은 대화와 봉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오

극복하기 위한 삶의 지혜



지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만을 받들어 자신을 버리고 오직 헌신하는 그분들의 노고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요즘 농어촌 마을에는 여러 형태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도시에서 가정파탄으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에 맡겨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을 시골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러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시골 목회자들이 돌보면서 차량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 도시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대형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나도 언젠가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여 봅니다. 오늘날 위기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극복은 내 믿음 변해야

올해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많이 해보려 하였는데 한 일이 없어 주님께 부끄럽기만 하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중에 계시지만 몇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예사롭지 못한 일이나 있음은 (기독교와 카톨릭 교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나 타종교인들 그리고 비종교인들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요한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의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무엇을 소홀히하였는가 깊이 묵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거룩한 선민으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 불황, 환경재앙,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너진 현실 등 제반 난제들을 나는 종합적 위기로 표현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경제만 활성화되면 위기극복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 만능주의는 오히려 죄

악의 씨가 되고 사탄들의 도구가 되어 온갖 사회 속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성도들까지 파멸하게 된다. 그러기에 종합적 위기를 맞게 된 주된 원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한해를 보내자.

현재의 우리의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00여년이 지나면서 영적 성장만 거듭되고 알곡 성도들과 성숙한 성도들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교회 안에서 세속처럼 교만하고 권위적이며 섬김 받으려하고 잘난 체하며 불합리적인 언행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나부터 속죄와 더불어 알곡 성도의 길을 가야만 위기도 극복시킬 것이라 믿으며 기도에 들어가려한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본을 보겠습니다.”

이젠 경기 불황만 위기라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형상과 같은 것이므로 영혼의 지침과 육신의 피로들을 치유할 방안으로 담임목사 비전을 활용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명목회 즉 생명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올바른 신앙관과 신앙 성숙의 필요성과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와 교회가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하며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시작하여 가정이나 이웃 등 성도들을 제시하고 있음은 우리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복된 교인이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1세기 초에 맞는 종합위기 극복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기도드린다. 아기 예수 오심을 감사드리고 교우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기를 기도드리며 새해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성전을 세웁시다.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이상적인 국가이며, 영원한 제국인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고하며 땀흘리지 않고 잘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유의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람이 더 곤경에 처하게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으며, 급매물은 서민들이 겨우 장만한 집들이고, 구조 조정도 결국 서민들의 뒤편것 같아 우울합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현실에서 절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1:7-11)

갈수록 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특성에 더하여 요즘의 금융위기는 극빈층을 양산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 입니다.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적 고난의 삶을 생각하는 성탄절 기간입니다.

고난이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로만 보지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기간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 할 수 있는 기대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간,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룩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정웅 장로



박종규 장로

2009년도 교육사역본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주님의 숲과나무'(교육사역본부의 새로운 이름)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으로 자라나도록 모든 교역자와 교사, 자녀와 그 가정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기존이름	새이름	장소
아기부(2부)	엘리삭	썩트네실
영아1, 2부	거자씨	영아부실
유아1, 2부	썩트네	유아부실
유치1, 2부	담쟁이	유치부실
유년1, 2부	레인보우	유년부실
초등1, 2부	햇살뜨락	초등부실
소년1, 2부	아름드리	밀알실
아기정원(목 10시)	이랑	유아부실
교육지원부	주님의숲과나무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30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늘 풍성하여지는 '주님의 숲과나무'는 어린이 사역본부와 청소년사역본부, 젊은이사역본부로 각각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 어린이 사역본부는 옆의 그림처럼 모임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시간(오전 9:30)에 모이던 썩트네(통합유아부)와 레인보우(통합아동부)로 모이던 2개의 부서가 영아1부, 유아1부, 유치1부, 유년1부, 초등1부, 소년1부로 늘어나 6개 부서로 모임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3부 예배시간(오전 11:30)의 기존 부서들은 영아2부~소년2부로 부서이름이 변경되며, 동시간대에 새롭게 신설되는 15개월 미만의 아기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기부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주중 사역으로 어린이정원이 아기정원(목요일 오전 10시)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모임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교회 교회교육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것은 내외부적인 요청과 교회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주일 3부 시간대의 포화상태로 인한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부로 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3부 예배의 집중으로 공간의 부족

은 모든 부서들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임장소의 필요를 다 채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교육부는 이미 일부 부서의 경우처럼 공간의 한계로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곳도 있고, 새친구의 숫자가 늘어나서 불과 얼마 후면 그러한 고민에 다다를 부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깐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주변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신뢰받는 교회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알곡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모색이기도 합니다. 부서마다 같은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 활동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 활동 중심의 1부 운영과 온전한 신앙전통의 틀을 세워나가는 2부 운영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신앙의 길 위에서 서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나누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사역본부 교역자일동

2008 성탄축하 현장

우리들 영혼의 방언에는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잘하는 것 없어도
드릴 것도 없어도 이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사진사역팀 제공

성막체험

지난 12월 17일(수)-22일(월)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막체험행사가 있었다. 날씨가 차갑고 눈발이 흩날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막체험은 그야말로 진지했다. 학생들은 하나하나 성소에서 행하는 의식을 학원선교회 봉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당시 성소에서 일어나는 정결한 의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본교회가 성막을 건축한 것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다. 성막건축 책임자 정원영 집사는 “처음에 당회장 목사님이 성막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목사님에게 어느 수준을 원하시냐고 반문했어요. 그냥 단순한 성막건축물이 있다는 차원이면 우드락으로 모형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존재한 형태대로 만든다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요.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실제성소를 체험할 내용의 성막을 제작한다면 단순한 12지파의 50만원씩 할당된 6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모아 실제 성막의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으며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 1540만원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각 지파 담당자들의 지혜와 희생과 화합의 결정체임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성막”을 체험하고 난 후...

우리 학교 앞에 며칠 전부터 성경에 나왔던 성막이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가 끝나고 나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막을 보러 왔다. 마침내 3학년들도 성막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들어가기 전에 한 선생님께서 성막은 ‘성소’를 의미하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 처소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처음에는 재미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오른쪽으로는 양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었고 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어 희생의 속죄제물을 드리는 곳이었다.

성막 안의 모든 것들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제사장의 의상이었다. 대제사장의 의상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뜯은 베실로 에봇을 만들고,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리고 홍패를 정교하게 짜고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리고 에봇 반침 긴 옷을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속옷과 두건과 관과 띠를 만들었고 아래에는 방울을 달아 놓았다. 여기서 방울은 대제사장이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방울을 달아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했다고 한다. 어떨 때에는 밧줄을 밭에 달아 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잡아 당겨 생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정신여중고 운동장에 성막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종교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배우게 되어서 더욱 머릿속에 잘 들어왔다. 또한 모든 기둥,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기하기도 했다. 비록 나는 이번 해에 졸업하지만 내년의 신입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회가 더 있어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정신여자중학교 3학년 8반 이원정 (학생회장)

성막이란 무엇일까?

성막에 사용된 주요 물건에 관한 규정

《법제》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분향단》 출 3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2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며

《등잔대》 출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번제단》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물두멍》 출 30:18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휘장》 출 26:31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뜯은 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32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돌지며

《대제사장 의상》 출 28: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홍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을 세우는 순서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①그 받침들을 놓고 ②그 널판들을 세우고 ③그 띠를 띠우고 ④그 기둥들을 세우고 19 또 성막 위에 ⑤막을 펴고 ⑥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 그는 또 ⑦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⑧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2 그는 또 회막 안 곧 ⑨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제작의 의의

성막은 단순히 역사적 유물의 하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들어 우리주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적인 우상을 통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금번 본 교회에서 기획했던 성경적 초대교회의 성막체험은 우리자신에게 존재하는 많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교회소식

08권사회



2008년 마지막 권사 월례회가 송년예배로 16일(화) 지하 찬양 연습실에서 드려졌다.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지난 일년 동안 권사로 책임과 맡은 일을 제대로 하였나 성령에 앞서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였는지 생각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정희성 목사는 권사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처럼 권사라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한 2009년 고선옥 권사

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수고를 하게 되었다.

정신학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



지난 19일(금) 오후 4시부터 본 교회와 정신학원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이른바 산학협동에 비유되는 교회와 학교의 의미있는 한집살이는 황금어장에 비유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주님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부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고교직

원 150여명에게 목사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셨다.

목사님은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며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라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을 사랑해야하며, 많은 사람을 품고 삶의 폭이 넓어지기를 조언했다. 한편 2부에서는 지하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난 후 김남철(고,수학) 교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의 하나로 형식적인 만남이 된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러한 형식적 만남의 고리자체조차 없어진다면 그간에 동거하면서 쌓였던 이해관계나 불편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서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와나클럽 신입교사를 모집합니다.

담임교사	반 아이들을 맡아 성경암송을 확인해 주고, 각 시간(게임, 핸드북, 교제시간)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찬양교사	교제시간에 찬양을 인도합니다.
반주교사	클럽 모임 시간 동안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게임교사	게임시간을 준비하고 인도합니다.
서기교사	문서정리와 기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합니다.
회계교사	클럽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물품구입, 주문)
미디어팀	사진, 비디오 등 모임 및 특별행사 시 촬영을 담당합니다.
스태프	컴퓨터, 음향장비를 준비하고 관리합니다.
그외	환경 꾸미기/ 탁아방/ 교재번역, 연구팀

* 교사신청서는 교회사무실에 비치
* 문의: 유영안 전도사 010-7788-6281

사진 동우회 활동수익금을 시력장애인 개안수술비로 후원

주님의교회 사진동우회(주사동)는 교회창립20주년기념 사진전을 통하여 모아진 수익금을 시력장애인 개안수술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2008.12.22(월) 오전11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원장 김선태 목사)에 사진동우회장 서정하 집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김선태 목사님은 실로암 안과병원

원이 추진하고있는 Siloam Eye Cennter 건립을 위한 사랑의 기도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맹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가 이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내용 부리쉬를 전해주셨다.

사진도 빛(명암)에 의해 영상이 표출되는 작업이기에 빛을 잃은 이들의 시력을 되 찾아 주는 일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취미생활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가정과 교회생활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의 사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일과 연계하다 보면 삶에 보람과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이루어 나감으로서 세상 속에서의 빛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사례로 소개 하는 것이다.

고석창 안수집사(2-3)

청각장애 이웃과 함께한 소리나눔



21일 사단법인 소리나눔과 함께 총 18명의 이웃들과 아름다운 소리를 나누었다. 그 동안 사단법인 소리나눔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보청기를 통해 믿음구역 가족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교회는 그 기쁜 사역을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어려운 청각장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기로 하였으며 그 첫 열매를 나누었다. 최귀옥 집사(6-5)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4-701566 예금주 사단법인 소리나눔)
www.sorinamum.kr 전화 1566-1202

요한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연극 살로메 공연을 마치고)



(수) 공연되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마태복음 14장에 실린 유대 왕 헤롯의 세례 요한 참수 사건을 바탕으로 쓴 희곡 살로메를 우리가 재해석하는 일로 이 공연이 준비되었다. 살로메는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요한에게 반해 버린다.

'백장미인들 너처럼 거룩할까!- 검은 포도송이 같은 머리칼'이라며 그 입술에 키스할 것을 원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녀를 '소돔의 딸'이라며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한다.

자신의 첫 사랑을 거절한 요한에게 애증을 느낀 살로메는, 자신을 위해 춤추면 원하는 모든 걸 주겠노

라 약속하는 헤롯왕 앞에서 춤을 추고 요한의 목을 요구한다. 결국 요한의 목은 베어지고 살로메는 요한의 베어진 목 앞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처절하게 고백한다.

이런 살로메를 본 헤롯은 살로메에 대한 질투와 요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도의 정신적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살로메의 목에 칼을 드리우고 만다.

우리는 살로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각색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2달 여 동안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다.

제작진과 배우들이 땀을 흘리며 연습하면서 얻은 그 감격은 공연에서 고스란히 객석에 전달되었음을 보았다.

우리가 품었던 그 감격의 하나는 진리를 위해 목이 잘린 요한을 본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 던진 그 애잔한 말 앞에, 요한의 역을 맡은 윤대운 전도사가 진하게 흘린 눈물이 도화선이 되었다.

요한의 마음을 품고 연기하는 윤대운전도사는 예수

님이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신 예수의 인자하심과 인간 예수로서의 감격이 함축된 '요한, 그대인가!!'라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요한 역을 맡은 윤대운전도사가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을 쏟아 낸 것, 그 눈물의 연기는 진리를 갈망하는 윤대운 전도사의 마음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기에, 지워지지 않는 여운으로 우리 가슴에 살아남은 것이다.

이 연극의 감동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연습 때 흘린 땀이 아니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많은 땀을 쏟아낸 5분의 conductor, 17분의 staff, 14분의 배우 들이시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석에 오셔서 그 감격을 함께 하셨던 여러분이시여, 그리고 애잔한 마음으로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는 살로메라는 연극으로 우리 가슴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어 행복합니다.

김해기 집사 (7-1)